



14일 광주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당 1천988원으로 2천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1시께 광주 남구 독립로의 한 착한 주유소 모습. /안태호기자

고유가 쇼크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

석유류 물가 광주 12.4%·전남 11.9% ↑
경유 21% 이상 ↑ ...지역경제 영향 확대
휘발유값 2천원 근접...생활물가 부담 ↑

“기름값이 너무 올라 예년 같이 꽃 구경갈 엄두가 안 나네요.”
14일 오후 1시께 찾은 광주 남구 독립로의 한 주유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의 표정에는 계절의 여유 대신 부담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주유기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은 없었지만, 기름을 넣는 손길은 한층 더 신중해진 모습이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주유 금액을 계산하듯 계기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거나 주유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번 버튼을 조절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차량에 기름을 넣던 직장인 김모(52)씨는 “예전에는 주말이면 가족들과 근교로 나들이를 자주 갔는데, 요즘은 기름값이 부담돼 가까운 곳도 쉽게 못 나간다”며 “아이들이 꽃 보러 가고 싶어도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나갔다 오면 기름값만 해도 몇 만원이 훌쩍 넘다 보니 외식이나 다른 소비까지 줄이게 된다”며 “요즘은 차를 꼭 써야 할 때만 운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역 석유류 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석유류 물가지수는 141.1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128.7)보다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131.3에서 143.2로 11.9% 오르며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두 지역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상승세는 더욱 뚜렷하다.
광주의 휘발유 물가지수는 123.1에서 132.7로 9.6% 상승했으며 경유는 132.4에서 154.0으로 21.6% 올라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전남 역시 휘발유가 123.3에서 132.0으로 8.7% 상승한 데 이어, 경유는 130.8에서 152.4로 21.6% 급등해 두 지역 모두 경유 물가가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경유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운송·물류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유가정보시스템 오픈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당 1천988원, 전남은 1천900원으로 2천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역 내 최고가격은 광주 2천89원, 전남 2천140원까지 형성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2천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콘진원, 농촌 일손돕기 발벗고 나섰다

나주시·유관기관·범농협 합동
영농지원 발대식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4일 “전남 나주시 및 유관기관, 범농협과 함께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대식은 나주배박물관에서 열렸으며,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범농협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공유하고, 지역 농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콘진원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발대식 이후 참여자들은 나주시 금천면 일대 농가로 이동해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콘진원 임직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약 30명이 참여해 배화집, 꽃따기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농가의 실

질적인 인력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콘진원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임직원의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윤상 콘진원 경영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콘진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등급을 3년 연속 획득했으며,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공헌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주 외인 자금 유입 관심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4월8일~4월14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9.1%, 코스닥은 8.2%가량 상승했다. 해당 기간 코스피는 개인이 9조원 순매도한 것을 기관 외국인이 절반가량씩 가져갔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 물량 3조원가량을 개인이 가져갔다. 3월 말 개인들이 저가에 담아간 주식들을 외국인, 기관이 말아올리면서 사는 모양새다. 어느새 삼성전자는 다시 2만원권에, SK하이닉스는 역사상 신고가다.

3월 내내 시장을 괴롭히던 이란 전쟁 이슈는 시장 자체적인 내성이 생기고 있고, 트럼프의 과거 중국과의 협상 시나리오를 복기해 봤을 때 협상 타결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1일 있었던 1차 협상의 결렬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렸으나 점점 양측의 분명한 협상 의지가 점차 드러나고 있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등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다.

협상 결렬은 단기 약재다. 그러나 휴전의 틀과 대화의 문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번 회담은 1979년 이후 50년 만에 이뤄진 최고위급 회담으로 양측은 즉각적인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대화 채널 자체를 끊지는 않았다. 시장의 이목은 이미 경기와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물가 부분을 제외한 시장 환경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휴전으로 이어지거나 종전 사인을 한다면 생각보다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강한 쪽이 이기는 게임이라기보다는 누가 더 오래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느냐의 게임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는 트럼프가 한발 양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미국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의지만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최장 2개월이다. 철군 기간 1개월을 활용한다고 해도 4월 말~5월 중순이 트럼프 입장에서 최선의 협상 기간이기에 만약 항

공모함을 활용한 최후의 압박에 추가 증시 조정이 온다면 마지막 매수 기회일 것이라 생각한다.

낙폭과대 수효는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이란 전쟁 이후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가파르게 하락한 만큼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고, 역시 국내 증시에서 가장 기대되는 업종은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속된 말로 ‘쪼갠다’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확실히 외국인의 매도세는 줄어들었다. 올해 내내 외국인인 삼성/하이닉스를 강하게 매도해왔는데, 2월 말 이후의 외국인 매도는 전쟁의 영향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아진 외국인의 반도체 업종 지분율(48%)이 더 낮아지는 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약세 국면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4월23일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기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확실히 개선된 국내 수급을 기반으로 전쟁의 피해를 가장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전쟁 속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오픈 AI는 최근 또 184조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IPO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경제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반도체의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밖에 없고, 내년이면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없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반대로 고금리 환경에 삼전당계약 이슈로 제약/바이오에 투심을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적면에서 당분간 짝할 숫자가 없는 로봇도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순 코스닥 ETF 수급으로 오를 종목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중국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4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중국 내수의 핵심은 건설인데 그 바로미터인 굴삭기 판매가 호조세로 건설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머징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기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모처럼 중국까지 활력을 찾았다면 국내 수출주들도 추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수단에서의 예상은 상반기는 5,700~6,100 등락을 예상하고 하반기는 7,000포인트를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남평 전통시장
장이 서는 날 ○ 매월 1, 6일로 끝나는 날

전국최초 퓨전시장
목사고을 전통시장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5일장
영산포 풍물시장
장이 서는 날 ○ 매월 0, 5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NAJU 나주시** 광고문의 : 062)650-2099